

2009년 제2기 산림경영모델학교 운영

1. 일시 : 2009. 11. 26(목)~27(금)(1박2일)
2. 장소 : 충북 제천시 명성유유웨딩컨벤션
충북 제천시 산약초 GAP시설
충북 제천시 봉양면 칠봉산, 제재소, 주유소
충북 제천시 백운 참숯가마
충북 청풍문화재단지
3. 참석자 : 94명 (회원 86명, 관계자 8명)



개회사(회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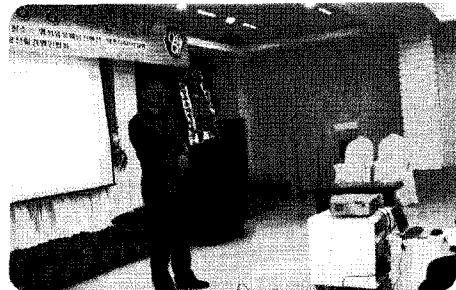
환영사(제천시 김광중 부시장님)

4. 교육내용

가. 이론교육

○산약초 재배 및 가공

- ※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박철규 팀장
- 산약(마)재배기술
- 업나무 재배기술
- 장뇌삼(산양삼)재배기술
- 황기(단너삼)재배기술
- 불로환, 경육고, 하수오 환 가공법



○숯 만들기

※ 국립산림과학원 조태수 박사

- 숯 사용역사
- 전통식 숯가마(탄요)에 의한 탄화
- 목탄의 특성(탄화온도와 목탄물성의 관계)
- 흑탄과 백탄
- 목탄의 이용(수질정화재, 미생물 부활재, 보습제)
- 목탄, 목초액의 친환경농자재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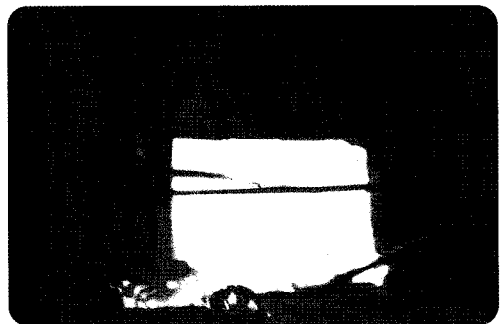
나. 현장교육

○산약초 GAP시설견학



제천시 약초 GAP현장(2010 제전 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개최)

○숯 제조 현장 견학



백운참숯가마

○산지복합경영 성공사례 교육 및 현장견학



성공사례 발표



성공임지 현장

한철웅부회장



성공임지 현장



복합경영(제재소)

○산지 임지 다목적 활용 현장



주유소



정자

이경용 충북지회장

○ 청풍문화재단지 관광



○ 종합토의



○ 친교



5. 회장개회사(요약)

- 국가로부터 인증서를 득한 독립가들이 모인 우리단체임
- 200만 농민인데 218만 산주를 가지고 있는 우리이므로 우리 스스로 산을 가꾸고 산을 아끼는 가운데 산림청의 지원으로 실시되는 2일간의 교육 행사이니 새로운 정보와 알찬 기술을 습득하고 친목을 가꾸도록 합시다.
- 우리의 소망사항이 산림청 단독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10%정도이고 관계기관, 국회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니 우리들이 능동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들을 만나 우리입장에서 아무런 구애됨이 없이 대화하고 실정을 알리고 건의하도록 합시다.
- 이번에 임업기계화 자금 32억과 모델 숲 시범사업비 30억을 확보하고 자경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낀 바이고, 우리회원 한분 한분의 관심과 지원이 커다란 힘이 됨을 알았습니다.
- 우리 국토 70%가 산인데 우리 임업인들의 소통의 공간인 회관조차 없는 실정이어 회관건립 추진위원회가 이번에 구성 되어 제가 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 산림에 대한 투자가 현재 국가예산의 0.6%인데 적어도 1%수준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산림청을 돕도록 합시다.

6. 종합토의(건의)

- 임도시설 예산은 농특회계(국유임도)와 광특회계(민유임도)로 이원화 되어 있어 국·사유림 및 지자체간의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민유임도는 광특회계의 특성상 지방 자치 단체의 선호도에 따라 임도시설 여부가 결정되므로 인접 시·군이 국유임도와 연계성이 없이 시설되므로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국유임도와 민유임도간에 연계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광특회계로 편성하고 있는 민유임도 예산을 농특회계로 일원화 할 수 있게 해야 함.
(정 에드워드 부회장)

- 나무 베고 운반로를 나무를 심어서 복구하라하는데 우리국토의 70%가 산인데 안 될 말이다. 임도로 활용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환경을 누릴 기회를 주고 사장된 국토를 찾는

것이며 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공무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이의 타당성을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장해야한다. (진재량고문)

- 일본도 보존임지는 공익기능을 인정해 직불금을 주고 있다. 우리도 직불제를 도입해야한다. (박병주회원)
- 독일은 임업인에 대한 위상이 대단하고 온 국민의 선망의 대상으로 작위도 수여한다. 동식물 개체수를 산주가 조사하여 수렵허가도 산주가 한다. 탄소세를 도입하여 산주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도현)
- 녹색성장시대에 우리가 존경받을 만큼 조식을 키우고 활성화 하자. 그래야 먹힌다. (신무섭 경북도지회 총무)
- 벌기령과 상환기(거치기간)불일치 시정. 보존임지에 펜션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여 산주도 돈을 만질 수 있고 국민들도 쉬게 해야 한다. (한철웅 부회장)
- 가축은 병들어 폐기하면 보상해주는데 병충해 목을 벌목하는데 아무런 보상제도가 없다. (최원규 충남도지회장)
- 수종갱신 정책의 지속성 필요. (송인문 감사)
- 지자체장은 표를 의식하니 애로사항 타개에 용이하다. 지자체장과 직접 대화하라. (박병욱 회원)
- 산림청장과의 간담회 기회를 마련. 젊은 층 회원들과 의사소통 기회 마련 요망. (장대석 전북지회 총무)

통화품질 높이고 산불발생 줄인다

- 산림청 · 이동통신 3사, 산림 내 철탑시설 공동 사용을 위한 MOU 체결 -

산림 안 철탑시설 공동 사용 협약서

일 시 : 2009. 11. 11

장 소 : 정부대전청사



산림청과 이동통신 3사가 산악지역에 설치한 각각의 철탑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등산객들의 통화품질 개선효과와 더불어 산불감시 역량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정광수)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대표 정만원, KT 대표 이석채, LG텔레콤 대표 정일재)는 오늘 오전 11시 이상길 산림청 차장과 이동통신 3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 안에 설치하는 철탑 시설물을 공동 사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체결로 산림청과 이동통신 3사는 각각 설치한 철탑에 산불감시카메라와 이동통신 안테나를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이동통신사간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산악 지역에서의 고질적인 통화불량 민원 해소는 물론 산불위험 사각지대를 대폭 줄일 수 있어 산불방지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림청과 이동통신 3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양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안 철탑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결과 공동사용이 가능한 개소는 연차별로 보강작업 등을 거쳐 산림청은 감시카메라를, 이동통신사는 안테나를 각각 설치하게 된다.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산림청 감시카메라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동통신사가 주관하여 철탑을 세우게 되며,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산림청은 이번 협약으로 시설물을 공동 사용하게 됨으로써, 신규설치의 경우 개소당 감시카메라 설치비용이 1억 6천만원 인데, 6천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여 약 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5년간 약 200개소의 산불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인 산림청으로서 2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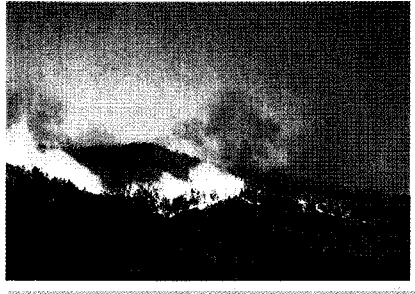
이상길 산림청 차장은 "이번 협약이 민간기업과 정부, 이용자인 국민 모두가 Win-Win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동통신 관계자도 "그동안 산림지역 인·허가가 어렵고 개별 사업자로는 투자에 많은 부담을 느꼈는데 산림청의 협조와 이동통신 3사의 공동 투자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고질적인 민원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산림훼손 우려와 많은 투자비 부담 때문에 산악지역 이동전화 통신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많은 등산객들의 통화불량 민원에 시달려야 했으며, 산림청은 예산부족으로 산불감시를 위한 감시카메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3월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안에서는 이동전화 통화불량 해소를 위한 무선국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바 있다. **山林**

문 의 : 산림청 산불방지과 심태섭 사무관(042-481-4255)

산림청, 6일 대규모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 실시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오는 6일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대에서 민·관·군 6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을 실시한다.

지난 2000년과 2005년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계기로 실시하는 이번 산불진화 합동훈련에서는 국가 산불재난 방지차원에서 산불 현장통합지휘 체계의 확립과 유관기관의 공조체계 구축 등 산불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번 훈련에서는 산불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공중지휘기 통제하에 산림·군·경·소방·임차 헬기의 합동 공중진화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지상진화대 400여명이 참가하여 지상과 공중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되며, 산불현장에 원활한 물을 공급하는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의 효과적인 지상진화 방식에 대한 시연회도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훈련을 통해 공중(헬기)과 지상(현장지휘본부)간 긴밀한 무선통신 운용과 산불 확산단계별 통합지휘본부장의 위기관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점차 대형화되고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불현장통합지휘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진화역량 배양을 위한 산불진화 종합 훈련을 매년 정례화하는 한편 산불진화장비 및 전문 진화 인력의 확충과 산불진화지휘자의 교육·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등 산불진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山林**

문 의 : 산림청 산불방지과 박원희 서기관(042-481-4257)

산림청, 제1회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개최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다음달 10일까지 조경, 산림, 건축, 도시계획 등 관련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1회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대전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도시숲 부지(녹색쌈지공원 1곳, 산림공원 1곳) 가운데 1곳을 선택 후 도시숲 정책방향에 맞추어 인위적 시설물 위주를 지양한 자연에 가까운 산림, 자연형으로 설계하면 된다.

공모대전 응시자격은 조경, 산림,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관광 등 관련학과 대학(원)생으로 단독 또는 모든 구성원이 자격을 갖춘 팀으로 응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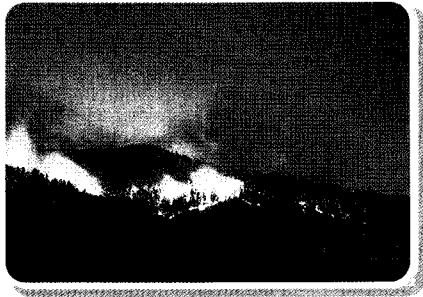
작품접수는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참가신청 접수증, 작품설명서, 작품판넬, CD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7개의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산림청장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을 참조하면 된다. **산림**

문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김경목 사무관(042-481-4224)

산불발생 원인 과학적으로 규명해 가해자 추적

- 산림청, 산불현장에서 활용할 '산불조사 실무 매뉴얼' 발간 -



앞으로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행경로를 추적하여 발화지점과 발화물질을 과학적으로 찾아내고 실화인지, 방화인지, 발화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산불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적용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산불발생시 피해원인을 일정한 절차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밝혀내는 산불 감식 업무를 체계화·표준화하기 위해 산불진화현장에서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불조사 실무 매뉴얼'을 발간해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에는 산불조사·감식·방법과 절차, 산불 원인별 조사·감식·요령, 산불가해자 검거방법, 산불 수사 사례 등 일선 산림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현복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이번에 발간된 실무 매뉴얼이 산불현장에서 산불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여 가해자를 추적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부터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산불조사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등 산불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산불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조사계'를 신설('09.4.30)한데 이어 산림보호법 제정('09.6.9)시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산림**

문의 : 산림청 산불방지과 강신원 사무관 (042-481-4259)

가을철 산불원인, 입산자 실화 최소화에 주력

- 산림청,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 역량을 집중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에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산불방지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은 연간 건수의 14%(65건)에 불과하지만 가을철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에 의해 발생(63%)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산에서 웰빙을 즐기려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년 가을철 산불여건은 지난 여름철 강수량이 적었던 점과 11~12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전국 300여개 산림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11월 1일부터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입산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하는 한편,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확대 고용하여 산림과 연결된 하천·농경지 등에 방치된 농산 쓰레기 및 폐비닐 수거작업과 병행하여 산불위험지역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밀착 감시를 통한 산불예방 및 조기발견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초대형 헬기 4대를 전국 4개권역에 배치하고, 대형헬기는 기존 9개 격납고에 배치 운영하며 지역별 기상여건 및 산불위험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산불 발생시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11월 6일 강원 영월에서는 전국의 산불관계관 등 5백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산불 진화합동시범훈련」을 실시하여 대형산불 발생시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임무와 역할 습득 및 산불 진화유관기관의 신속한 지원 등 유기적 대응체계를 훈련하게 된다.

산림청 김남균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발생한 그리스 산불, 미국 LA 산불을 통해 대형산불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지를 잘 보여 주었다"며, "우리도 대형산불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 활동에 동참할 때 산불피해는 줄어 들 수 있다"고 말하며, 산에 갈 때는 절대로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을 것과 담배를 피우거나 밥을 짓는 행위 등은 절대로 하지 말아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산불방지과 조용철 사무관(042-481-4251)

녹색일자리사업 체험수기 공모 우수작 시상

- '아줌마 숲해설가'로 응모한 '이나연 숲해설가' 금상 수상 -



사업실패로 인한 우울증을 녹색일자리사업을 통해 이겨내고 숲에서 삶의 희망을 일궈낸 체험수기 '아줌마 숲해설가'로 응모한 '이나연 숲해설가'가 영예의 금상에 선정됐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11월 30일 오전 11시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녹색근로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녹색일자리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녹색일자리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지난 9월부터 산림분야 녹색일자리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험수기를 공모한 결과 총 247편이 접수되어 2차례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20편의 우수작품을 선정했다.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에게는 산림청장 표창과 포상금이,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숙박권이 지급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제출된 체험수기의 대다수가 가정형편, 건강, 실업 등 어려운 여건에서 녹색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는 내용이 많았다"고 밝히면서, "숲해설가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본인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체험수기 247편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64편을 묶어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체험수기집'으로 발간하여 도서관, 언론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난 해소를 위한 녹색일자리사업을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에게 일일 6만 3천여개의 녹색일 자리를 제공해오고 있다. **산림**

문의 : 산림청 녹색일자리창출팀 이종갑 사무관(042-481-4037)

녹색성장 주역 '임업인' 한자리에 모인다

- 산림청, 오는 26일 '전국 임업인 만남과 소통의 장' 마련 -



산림청이 개청 이래 처음으로 전국의 임업인, 임업계 원로 및 임업단체대표 등을 초청하여 산림정책의 미래비전을 논의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산림인력개발원(경기도 남양주 소재)에서 정광수 산림청장을 비롯한 전국 각 분야의 임업인과 산림관계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임업인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날 소통의 장에서는 산림정책의 추진방향을 임업인들에게 설명하여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고, 임업과 산림행정 발전과제, 현장애로 및 해소 방안에 대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산림경영 현장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국 각 분야의 임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인을 섬기고,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산림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임업인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소통의 장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산림정책 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김만제 사무관(042-481-4191)